

이슈브리프 18-26

# 신민주화장품의 성공사례와 북한경제의 미래상

ISSUE  
BRIEF

2018

0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 신의주화장품의 성공사례와 북한경제의 미래상

이상근 (안보전략연구실)

##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채택 후 경제현장 현지지도 주력

경제현장 현지지도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연일 화제다. 김 위원장은 6월말부터 중국 단둥에 인접한 평안북도 신도군과 신의주의 여러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7월 초에는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는 대신 삼지연군의 감자농장 등을 방문하였다. 7월 중순에는 함경북도 내 건설현장, 농장, 휴양소, 공장 등을 시찰하였고 노동신문이 평소의 두 배에 달하는 12면을 발행하는 등 북한 언론의 대대적 보도가 뒤따랐다.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함께 추구하던 노선을 마무리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하였다. 뒤이은 남북·북중·북미 정상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경제건설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 생산시설과 건설현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다양한 평가와 지시를 내리고 북한 언론이 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어떤 곳을 방문하여 어떤 ‘지도’를 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북한경제의 실상, 그의 문제의식, 무엇보다도 그가 북한경제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러 현지지도 대상들 중 김 위원장이 가장 큰 만족을 표시한 곳은 신의주 화장품공장이었다. 노동신문이 후속 기사를 통해 이 공장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상세히 보도하기도 하였다. 신의주 화장품공장이 북한의 기업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모범으로 내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주 화장품공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평가와 그가 더욱 개선하라고 요구한 부분 그리고 노동신문의 후속기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 나아가 북한경제의 변화방향을 추론해보려 한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주화장품 현지지도를 통해 제시한 북한기업 및 경제의 변화방향이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 얼마나 타당한지, 정치·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간략히 논할 것이다.

## 새로운 모범으로 떠오른 신의주화장품공장

1949년에 설립된 신의주화장품공장은 ‘봄향기’라는 브랜드로 백여종의 화장품을 생산하며, 비누, 치약 등도 만들고 있다. 봄향기는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 브랜드이며 품질 면에서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출상품이기도 하다. 신의주화장품이 북한 기업들의 새로운 모범으로 내세워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비즈니스적 성과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신문은 신의주화장품공장을 “과학연구와 생산, 판매의 일체화가 실현된 기술집약형 기업 구조를 훌륭히 갖춘 산업기지”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향해 온 북한경제의 미래상에 부합한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자동화, 무인화된 첨단 생산공정을 갖추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시로 평안북도전자업무연구소의 연구자들이 공장 측과 협력하여 무인운반차를 개발하였으며,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공정의 무인화, 자동화를 달성했다고 한다. 더욱이 위생통과실과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는 등 공정의 무균화, 무진화도 실현하였다.

이 공장은 풍부한 연구개발 인력을 갖추고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김일성종합대, 리과대, 함흥화학대 등을 졸업한 인재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장장, 작업반장, 고급기능공 등 적지 않은 직원들이 겸직 연구사가 되어 기술혁

신, 신제품개발,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설치하고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인재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온 결과라고 한다.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및 규격갱신, 공정 및 프로그램설계 등을 나누어 담당하는 4개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석용 설비들을 부단히 갱신 및 보충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기능성 재료의 연구개발에 몰두해 왔다.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과학적인 경영전략’을 실천해 왔다는 점도 중요하다. 상기한 4개의 연구실들 중 하나는 구매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판매전략을 세우는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신의주화장품은 직영 화장품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의 피부상태를 검사하여 개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기능성 제품을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파악한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제품의 효과 등을 제품개발에 활용한다. 지배인과 기사장은 기술자, 연구사들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검토하며 협의회를 가진다. 협의회에서는 기능성 화장품들에 대한 수요와 제품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제품 종류별로 생산량과 기술개선 방안이 토의된다.

정갈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실내외 공간도 신의주화장품공장이 모범으로 내세워진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첫인상을 “상긋한 향기”가 마음을 마냥 상쾌하게 하고, 가지런히 포장된 도로와 “녹음방초” 우거진 구내, 아름다운 꽃과 관목이 청신함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묘사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장 바닥을 예뻐서 수지와 아크릴 수지 칠감으로 마감하여 깨끗하고 정갈하다고 칭찬하였다. 이는 신의주화학섬유공장 방문 시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를 들여놓고 시험생산을 하자고 하고 있다”며 “설비 현대화에 앞서 생산건물과 생산환경부터 일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건물 보수를 땀때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대조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공장의 경영방식을 극찬하면서도 세계적인 화장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품질을 높일 것, 더욱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할 것, 수작업을 완전히 없애 더욱 고도로 자동화된 공정을 실현할 것, 화장품 원료 국산화 비율을 더 높일 것 등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지시를 관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박봉주 총리의 평안북도 ‘현지료해’ 과정에서도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 공정들의 현대화를 완벽하게 실현하며 공장들을 로력절약형, 기술집약형 공장으로 전변시키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고 한다. 신의주화장품의 현재 모습과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적 요구사항, 박봉주 총리의 현지료해 시 토의사항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북한 기업의 미래상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지식기반의 첨단 연구개발, 자동화·표준화된 생산공정,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산·생활환경 등이다.

## 시장지향적인 동시에 김정은의 개인적 선호가 반영된 발전방향

신의주화장품공장 등의 현지지도를 통해 드러난 북한 기업 및 경제의 변화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노동신문 등이 묘사한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모습은 자본주의사회의 기업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혁명사적교양실을 갖추고 있다거나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진을 생산현장에 모셔두었다는 등 생경한 장면도 있지만 마케팅, 연구개발, 생산 등의 과정은 시장경제체제 하의 기업들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신의주화장품의 사례를 앞세워 시장 논리에 충실한 과학적 경영전략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 기업 및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짚은 결과인 듯하다. 같은 맥락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고 품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북한의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자동화와 무인화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북한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듯하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서 찾고 있다. 유희노동력의 규모도 엄청나다. 넓지 않은 경작지에 비해 농민의 수가 많고, 대다수 노동자가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는 공장에 묶여있다. 10년이 넘는 복무기간을 채우고 있는 군인의 수도 막대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와 무인화를 거듭 강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의주화장품공장 방문 시 화장용 붓 제작 등 외국에서도 수공업적으로 하고 있는 공정까지 수작업을 완전히 없애고 기계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요구에는 경제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김 위원장 개인의 자동화, 첨단화에 대한 강한 선호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설비를 확충 및 유지하기도 버거운 생산현장이 대부분인 실정에서 실내외 공간을 ‘번듯하게’ 꾸미라는 요구도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설비 현대화에 앞서 건물과 환경부터 일신하라는 지시는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대 건축물을 세우는데 몰두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달론 생산시설을 애써 재건하는 등 스케일과 체면을 중시했던 김정일 위원장에 비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레저시설 확충에 힘쓰는 사회·문화정책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을 생산시설의 외관을 꾸미는데 사용하는 경제정책 역시 경제적 효율을 넘어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선호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북한경제의 미래를 간략히 표현하자면 ‘첨단화된 생산시설을 갖춘 지식기반산업이 중심이 되는 선진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미래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를 단기간에 추구하려 할 경우 꿈꾸는 미래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산업정책은 상당한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지향이 가진 정치·사회적 의미는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지식기반경제와 첨단화된 산업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 정권은 과학기술과 교육을 중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풍부한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고 있는 것은 물론, 12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수방법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각종 과학기술을 적용한 교육기자재들이 확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토론을 통해 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의 수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보다 합리적, 실용적인 방향으로 북한사회 전반이 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이 꿈꾸는 북한경제의 미래는 오직 개혁개방의 본격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끊임없이 경제현장을 찾고 있는 김 위원장도 그러한 점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첨단산업 위주의 지식기반경제를 건설하려는 김 위원장의 강력한 바람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경제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대한 동인이 될 수도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